칠레, 농업 및 농산물수출 개황

칠레는 세계 32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금년 4월 1일자로 FTA를 발효하고 있다. 칠레의 농업개황과 농산물 수출현황, 그리고 주요 수출관련단체 등을 소개한다.

1. 일반 개황

칠레는 남미의 안데스 산맥 서쪽에 남북으로 길게 펼쳐져 있다. 남북의 길이는 무려 4,329km으로 남위 18도에서 57도까지 퍼져 있으며, 폭은 넓은 곳은 375km, 좁은 곳은 90km에 달한다. 동쪽의 안데스 산맥은 가장 높은 곳이 해발 7,000m로서 자연적으로 볼리비아 및 아르헨티나와 국경을 이루고 북쪽은 페루와 맞닿아 있다. 서쪽은 태평양에 접해 있으며 안데스 산맥의 급경사가 해변으로 오면서 평야지대가 열려져 있다. 전 국토 면적은 본토만 75만 6,000㎢로 남한면적의 약 7.5배이며 그 중 20% 정도가 평야지대이다. 섬(Easter Island 및 Juan Fernandez Islands)과 칠레령 남극대륙까지 포함 하면 전체 면적은 125만㎢에 달한다.

전 국토는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12개 토막으로 나뉘어 각 주를 이루고 있는데 1번 주(Tarapaca)는 아열대, 12번 주(Magallanes)는 남극에 가깝게 위치해 있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는 남위 36도로 남북의 한 가운데 있으며(5번 주와 6번 주 사이) 온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다.

칠레는 북쪽은 아열대성 난류가, 남쪽은 남극의 찬 한류가 흐르기 때문에 기후도 다양하다. 북쪽 1, 2번 주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지대로 연 강우량이 1mm에 불과하고, 남쪽 11, 12번 주는 한대지방으로 연 강우량은 5,000mm에 달한다. 이와 같은 폭넓은 기후대 때문에 칠레의 동식물 분포는 매우 다양하며 농업과 산림분포도 역시 다양하다. 산티아고는 여름철 최고기온은 32도, 겨울철 최저기온은 영하 1도이나 얼음은 거의 얼지 않으며, 강우량은 연간 300~400mm 정도이다. 칠레 전체인구는 1,540만명이고 그 중 500만명이 수도인 산티아고에 살고 있다.

농업은 주로 3번 주부터 10번 주까지 이루어지는데 농업용으로 쓰이는 토지는 17.7백만ha로 전 국토의 23%에 달한다. 농가호수는 33만호이며 그 중 생계농 및 영세농이 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농 5.2%, 대농은 2.8%이다. 농지는 생계농 및 영세농이 23%, 중농이 22.1%를 차지한 반면에 대농이 54.8%를 차지하고 있다. 대농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의 플렌테이션형 농장이다.

농업지대는 대부분 건조하기 때문에 관개를 하지 않으면 집약적인 영농을 할 수 없다. 관개하는 농지는 145만ha 정도로 곡류 96만ha, 채소 및 화훼 13만ha, 포도주용 포도 11.7만ha, 과수원 24만ha이다. 영세농 및 중농은 대부분 곡류, 채소 및 화훼를 재배하고 대농은 과수의 비중이 높다. 축산은 소 414만두, 젖소 62만두, 양 371만두, 염소 125만두, 돼지 172만두이다.

칠레의 총 GDP는 664.5억US$ (2001년)이며 1인당 GDP는 4,314US$이다. 경제성장률은 2000년 4.4%, 2001년은 2.8%이며 농업 GDP는 28억US$, 전체 GDP 기여율은 4.2%이다. 가공식품을 포함한 식품산업 전체 GDP는 88.7억US$인데 그 중 농업이 32%, 가공업 53%, 수산업 관련산업이 15%를 차지한다.

농림업 GDP에 기여하는 각 주의 비중은 1, 2번 주는 1% 이하이고 3번

주 4%, 4번 주 7%, 5번 주 11%, 산티아고 16%, 6번 주 13%, 7번 주 18%, 8번 주 11%, 9번 주 7%, 10번 주 8%이다. 11번 및 12번 주는 각각 1.5, 2% 정도인데 대부분이 임업이다.

경제활동 인구는 600만명을 조금 밑도는데 그 중 농업 취업자는 77만명 정도로 전체의 13%를 차지한다. 실업자는 전체 7.9%, 농업분야는 3.6%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95년 8.2%에서 1998년에 4.7%, 2001년에는 2.6%로 매년 떨어져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매물가 상승률은 3.1%, 농업부문 도매물가 상승률은 -1.5%로 농업부문이 물가안정의 주역이 되고 있다.

전체 산업의 평균 관세(종가세)는 1984년에 35%로 최고에 달했다가 85년 30%, 88년 15%, 99년 10%, 2003년 1월에는 6%로 급격히 떨어졌는데 이것은 최근 칠레가 세계 여러 나라와 FTA를 맺었기 때문이다.

2. 농업생산 현황

2.1. 곡류

곡류 재배면적은 1996년 84만 6,000ha에서 2002년에는 81만 4,000ha로 감소하였다. 밀은 1996년 38만 9,000ha에서 2002년에는 42만 6,000ha로 매년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체 곡류면적의 52%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귀리(oats) 9만 3,000ha, 옥수수 8만 7,000ha, 감자 6만 1,000ha, 사탕무 4만 7,000ha의 순이며, 쌀과 콩도 각각 2만 8,000ha씩 재배하고 있다. 감자와 귀리의 재배면적은 증가하는 반면에 옥수수, 쌀, 콩, 사탕무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ha당 수량은 밀 4.3톤, 귀리 4.5톤, 옥수수 10.6톤, 감자 21.2톤, 쌀 5.1톤 수준으로 1996년에 비하여 30～80% 정도 증

가하였다. 이러한 수량증가는 R&D 투자에 의한 품종개량과 재배방법 개선에 힘입은 바 크다.

2.2. 과일류

과일 재배면적은 21만 1,000ha로 30여 가지 과일이 생산되고 있다.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과일은 포도로 4만 5,000ha이며, 그 다음은 사과 3만 5,000ha, 아보카도 2만 2,000ha, 복숭아 1만 8,000ha, 자두 1만 3,000ha, 배 1만ha, 키위, 오렌지, 레몬 등이 각각 7,000～8,000ha씩 재배되고 있다. 최근에는 아보카도(특히 Hass 품종) 면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나무딸기류도 늘고 있다. 과일 생산량 중 약 50%는 해외로 수출되며 25～30%는 가공되고 있다.

과일별 주요 생산지역을 보면 포도, 아보카도, 오렌지 레몬은 3～6번 주까지 폭넓게 생산되고, 사과, 배, 딸기도 산티아고～10번 주까지 넓은 지역에서 생산된다. 또한 복숭아, 살구, 자두는 4～6번 주에서, 키위는 5～8번 주, 동양배는 6～8번 주에서 주로 생산된다.

표 1 칠레의 신선과일 재배면적 (ha)

포도	사과	아보카도	복숭아	자두	배	오렌지	키위	기타	계
45,489	35,090	21,890	17,719	13,006	10,360	7,820	7,775	52,240	211,386

표 2 신선과일 주요 재배지역

주별	Ⅲ	Ⅳ	Ⅴ	RM	Ⅵ	Ⅶ	Ⅷ	Ⅸ	Ⅹ
주요 과일	포도, 아보카도, 오렌지, 레몬					사과, 배, 딸기			
		복숭아 자두 살구	키위, 복숭아 자두, 살구 체리, 감, 자몽	사과, 배, 배[1] 키위, 복숭아 살구, 자두, 체리, 딸기		배[1] 키위 체리 자두	배[1] 키위 체리 복분자		

주 : 배1: 동양배, RM: 산티아고 Metropolitan Region

표 3 주요 과일 생산시기

	11	12	1월	2	3	4	5	6	7	8	9	10
포도												
사과												
배												
배1												
살구												
복숭아												
자두												

생산되는 시기는 포도는 11월 중순에서 이듬해 5월말까지, 사과는 2월부터 10월까지, 서양배는 1～9월, 자두는 11월하순～이듬해 4월상순까지 생산되며 살구는 11월하순～12월말, 동양배는 2～3월 동안 비교적 짧은 기간에 생산된다.

과일 품종은 소비자 및 해외시장의 수요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포도의 Globe는 Ribier 품종을 대체하고, 사과의 델리셔스 계통은 후지와 갈라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씨없는 포도, 감산미의 화합 등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며, 끊임없는 R&D 투자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칠레는 겨울철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는 일이 드물고, 여름철에는 고온건조하고 밤낮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과일의 당도가 높다. 또한 재배기간 중 강우량이 적어 병해충이 적으며 따라서 농약살포를 거의 하지 않는 등 품질이 매우 좋다.

2.3. 채소류

채소류 재배면적은 12만 4,000ha로 30～40종류의 다양한 채소가 재배되고 있다. 그 중 일년생 채소 재배면적은 11만 6,000ha, 다년생 채소는

8,000ha 정도이다.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토마토로 2만 2,000ha이며, 그 다음은 채소용 옥수수 1만 2,000ha, 상추와 양파 각각 6,000ha, 완두, green bean, 호박 각각 5,000ha, 수박 4,600ha 등이다. 이 밖에도 마늘, 메론, 고추, 당근, 배추, 아스파라거스 등 다양한 채소가 재배되고 있다. 이러한 채소들은 대부분 신선채소로 국내에서 소비되며 일부는 수출되거나 통조림, 캐첩 등으로 가공되기도 한다 (토마토, 고추, 완두, 아스파라거스).

칠레는 다양한 기후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중 다양한 채소가 생산된다. 북부지역에서는 이른 봄부터 채소를 생산할 수 있어 시장에서 좋은 가격을 받고 있다. 중부지역은 채소를 집중적으로 재배하는 지역으로 많은 종류와 물량을 공급한다. 남쪽지역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한 여름철에 저온성 채소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도 온실에서 겨울철에도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여 채소공급 시기와 장소를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2.4. 포도주 산업

칠레의 포도주는 크게 백포도주, 적포도주, 피스코(Pisco)의 3가지로 대별되는데 품질이 좋아 세계 각국으로 수출된다. 포도주용 포도원은 전국적으로 11만 6,700ha에 달하며, 그 중 적포도주는 8만 1,500ha, 백포도주 2만 5,400ha, Pisco는 9,800ha이다.

품종은 적포도주로는 Cabernet Sauvignon이 3만 8,200ha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Pais 1만 5,100ha, Merlot 1만 2,900ha이며, 그 밖에도 Carmenere, Tintoreras, Syrah 등이 있다. 백포도주는 Chardonnay가 7,567ha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Sauvignon Blanc 6,673ha, Moscatel de Alejandria 6,009ha의 순이며, 이외에도 7, 8개의 품종이 많이 재배된다. 한편 Pisco는 Moscatel Rosada 2,573ha, Moscatel de Austria 2,309ha, Pedro Jimenea 2,309ha이며, Moscatel de Alejandria, Torontel 등도 일부 재배된다. 이러한 품종들은 식용포도보다 알맹이가 작고 당도가 높은 등 (당도는 18～19 Brix) 품종 자체가 다르다.

칠레의 포도주 생산공장은 약 120개 정도이며 일부는 국내시장을 겨냥하여 식용포도로 포도주를 만드나 그러한 포도주는 반드시 table wine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2.5. 축산

칠레의 우유 생산량은 1995년에 185만톤에서 2002년에는 220만톤으로 매년 2～3%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국민의 우유 소비량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지난 1990년대에 우유소비량은 20% 이상 증가하였고 현재 국민 1인당 우유 소비량은 연간 126리터에 달한다.

칠레의 우유산업은 다국적 대형업체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 신선우유 업체로는 뉴질란드계 SOPROLE가 가장 크며 시장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스위스계 네슬러는 주로 분유업계에 진출해 있는데 50% 이상의 시장 share를 가지고 있다.

유가공 업계는 분유와 치즈생산에 주력하고 일부만이 liquid milk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러한 우유도 대부분 long-life milk(UHT)이다. 칠레의 우유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것은 앞으로 칠레산 유제품(분유, 농축우유, 치즈 등)의 수출 가능성을 보여준다.

육류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말고기, 양고기 등이 생산되며 총 지육생산량은 연간 103만톤에 이른다.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은 닭고기로 전체 고기 생산량의 47%를 점하고 있고, 그 다음은 돼지고기로 30%, 쇠고기는 21%를 차지하고 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생산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쇠고기 생산은 감소추세에 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최근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3. 수출 현황

3.1. 일반 현황

칠레는 세계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하여 교역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02년말 기준 총 수출액은 180억달러(US$), 총 수입액은 172억달러로 약 8억달러의 국제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지흑자 폭은 최근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분야별로 보면 상공업, 광업, 농림업의 순으로 수출액이 많다. 농림업 분야는 수출 50억달러, 수입 12억달러로 연간 약 38억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다. 농림업은 국가 전체 수출액의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농림업 분야의 수지흑자가 일반 소비재 수지적자 폭을 상쇄하고 있다. 수출액을 품목별로 보면 과일 및 곡류가 5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목재 39%, 축산 6%의 순이다. 과일 중에는 포도와 사과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아보카도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포도주 수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1995년에 비해 4배나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단일품목으로는 포도가 농림업 수출액의 12%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펄프 10.5%, 포도주 9.5, 목재 6.5%, 사과 4.9%의 순이다. 주요 수출입 상대국은 미국, 아르헨티나, 일본, 브라질, 중국, 멕시코, 영국, 화란, 베네즈웰라 등이다. 미국은 수출과 수입에서 30% 이상을 차지하여 단일국가로는 가장 큰 무역규모를 보이고 있고, 일본은 최근 수출액이 크게 늘고 있다. 또한 멕시코는 최근 ECA(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를 맺은 후로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경제권별로 보면 NAFTA가 전체 교역량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EU 23%, APEC 22%, MERCOSUR 6%의 순이다.

3.2. 신선과일

칠레의 신선과일 수출산업은 7,800여명의 생산자와 510여개의 수출전문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신선과일 재배면적은 약 21만 1,000ha, 재배되는 품목은 75개 이상이며 전 세계적으로 70여개국에 수출된다. 수출을 위한 저온저장고는 385여개, 저온포장센터는 중앙에 100여개, 지역에 1,000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다. 신선과일 수출량은 1998년에 147만톤, 2001년 160만톤, 2003년에 190만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출액은 FOB 기준으로 16억달러 정도인데 포도 5억 7,700만달러(36%), 사과 2억 3,500만달러(15%), 아보카도 7,800만달러(5%), 자두 7,000만달러(4%)이며 기타 과일이 나머지 6억 4,000만달러(40%)를 차지한다. 주요 수출시장은 미국·캐나다 41%, 유럽 27%, 라틴아메리카 20%, 아시아 8%, 중동 4%이다.

주요 품종은 포도는 Thompson Seedless (34%), Red Globe(24%), Flame Seedless(20%) 등인데 Red Globe는 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Thompson 품종은 미국으로 수출된다. 최근에는 Red Globe 수출은 줄어들고 품질 좋고 씨가 없는 Thompson과 Flame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사과는 색깔이 빨간 로얄갈라(50%)와 델리셔스(20%)의 비중이 높으나 최근에는 후지의 재배면적과 수출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과일의 현지 도매가격은 <표 4>와 같다

표 4 주요 과일의 현지 도매가격(원/kg)

	성출하기	단경기	연평균
포도	180~240	450~650	360
사과	90~100	150~240	146
배	110~170	230~300	194
복숭아	230~300	400~700	383
오렌지	130~180	230~310	215
키위	100~120	160~210	145

3.3. 수출진흥단체

3.3.1. 칠레수출협회

칠레수출협회(ASOEX ; Chilean Exports Association)는 비영리적 민간단체로 신선과일 수출업체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이다.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수출회사 수는 82개, 이들이 수출하는 물량은 전체 신선과일 수출량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품목별 수출회사 수는 포도 64개, 사과 42개, 복숭아 39개, 배 40개이며 한 회사에서 4~7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이 협회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 산업훈련, 기술개발, 전 세계적인 새로운 시장 개척,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프로그램 등을 위한 활동을 한다. GAP란 과일의 품질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업화학물질의 합리적 사용, 검역, 품질검사 등 종합적 제품관리 프로그램을 말한다. ASOEX는 과일과 채소 수출 동향을 자세히 보여 주는 통계 자료를 매주 이메일을 통해 회원사 및 구독자들에게 전송하며, 미국 및 유럽에 지사를 개설하여 현지 언어로 자국의 과일소개와 판촉활동을 하고 있다.

- ○ 주소: Curz del Sur 133 2층, Santiago, Chile
- ○ Tel: 56-2-206-6604
- ○ FAX: 56-2-206-4163
- ○ Web-site: www.asoex.cl
- ○ Contact person: Mr. Christian Carvajal(Marketing Manager)

3.3.2. 칠레신선과일협회

칠레신선과일협회(CFFA; Chilean Fresh Fruit Association)은 ASOEX 산하단체로 신선과일의 판촉활동을 담당한다. CFFA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에 website를 개설하고 현지어로 칠레산 과일의 소개와 판촉을 담당하고 있다.

- ○ 주소, 전화번호: ASOEX와 동일
- ○ 한국어 web-site: www.cffa.or.kr

4. 농림부 조직

□ 차관실

○ 농림부 산하 여러 기관에 대한 평가와 코디네이팅 역할 수행
○ 각 기관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

□ 국립농업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Agricultural Research; INIA**)

○ 칠레 농림업의 경쟁력 제고, 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 제고, 농림업의 지속성 확립 등을 위한 새로운 과학기술 개발, 수집, 접목

□ 농업개혁청(Foundation for Agrarian Innovation: FIA)

○ 농업근대화 및 농업의 체력강화를 위한 농업개혁 추진
○ 농업, 가축개량, 임업, 수산업 등의 기술교육을 위한 재정지원
○ 개혁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제공

□ 농업정보교육문화청(Foundation for Agricultural Communication Training and Culture; FUCOA)

○ 농업의 각 분야별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전통문화의 발굴 및 교육

□ 임업연구소(Chilean Forestry Institute; INFOR)

○ 경제·사회·환경 발전을 위한 자원 및 임업생태계의 친환경적 활용 기술 개발
○ 임업발전을 위한 민간 및 공공분야의 기술·정보 수집 및 배포

□ 자연자원정보센터(Natur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CIREN)

○ 자연자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각종 정보 수집 및 갱신
○ 자연자원 투자자에 대한 기술 컨설팅

□ 농업정책연구국(Agrarian Policies and Studies Bureau; ODEPA)

○ 농업정책 분석 및 국내외 정보 수집·제공
○ 농업정책, 해외관계, 농업 및 공공분야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에 관하여 농림부에 컨설팅 서비스 제공

□ 농업발전연구소(Institute of Agricultural Development; INDAP)

○ 영세농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여건개선 및 교육훈련
○ 다음과 같은 4가지 활동에 집중
- 영세농의 생산 및 경영능력 함양

- 재정 지원
- 생산기반 개선을 위한 서비스 지원
- 취약계층의 생산증가를 위한 서비스

□ **농축산서비스(Agriculture and Livestock Service; SAG)**

○ 농림분야의 경쟁력, 지속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 위생, 환경, 유전자, 지리적 조건 등을 감안한 농업생산 자원의 여건과 식품의 품질 개선

□ **국립관개위원회(National Irrigation Commission; CNR)**

○ 관개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 관개 및 배수개선을 위한 민간투자 촉진

□ **산림청(National Forest Service; CONAF)**

○ 중소농과 임업기업체들이 산림으로부터 최대의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 개발 및 시행
○ 산림자원 및 임업생태계 보전

5. 기타 관련 조직

□ **칠레무역위원회(Chilean Trade Commission; PROCHILE)**

○ 칠레 무역상사의 국제시장에의 교섭력 강화 및 수출촉진
○ 수출상품의 다양화 및 품질 개선
○ 해외 바이어 확보 및 수출정보 수집·제공

□ 경제개발청(Chilean Economic Development Agency; CORFO)

○ 생산시설 근대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발전 추구
○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확대
○ 기업체에 대한 장기 금융지원

□ 기술협력서비스(Technical Co-operation Service of Chile; SERCOTEC)

○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능력 향상

6. 칠레의 포도산업 관련 사진

Agua Santa 회사 Packing House에서 수출을 위해 포장하고 있다. 포장 단위는 5, 10, 15kg이며 상온에서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포장 즉시 저온 저장고에서 6시간정도 예냉된 후 냉장 컨테이너에 실려 세계 각국으로 수출된다. 우리나라까지 수송 시간은 해상운송 40일, 통관에 2～3일이 소요되어 포장에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이르는데 약 45일 정도 걸린다. 그 동안 당도가 약 1Brix 정도 떨어지고 줄기가 약간 마르는 등 품질이 상당히 저하된다. 현지 소매시장에서의 가격은 kg당 300～500원(한화) 정도이며 우리나라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3,000～4,000원이다.

이것은 따라빠까(Tarapaca) 농장의 항공사진인데 골짜기 하나가 모두 포도밭이다. 면적은 650ha. 이 정도는 적은 편이다. 큰 농장은 1,000~2,000ha 짜리도 많다고 한다. 농장 안에 조그만 비행장도 있다(농장 하단에 사선으로 길게 뻗은 것이 활주로임).

따라빠까 농장을 가까이서 찍은 사진임. 끝이 안보일 정도로 농장이 넓다.

햇볕을 잘 받게 하기 위해 골은 남북으로 내고 골과 골 사이를 2.5m 이상 충분히 벌려 놓았다

적포도주용 포도인데 알이 작고 당도는 18～19Brix로 대단히 달다. 당도가 높을수록 좋은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Red Globe 품종인데 한 송이의 크기가 1.5~2kg 정도이며 알이 굵고 당도가 높다(16~17Brix). 포도주용 포도와는 달리 평덕식으로 재배하며 경제수령은 보통 30년이다. 껍질과 살이 잘 떨어지지 않고 씨가 6~8개 들어있어 먹기에는 다소 불편하다.

씨없는 Crimson 품종인데 품질이 좋아 유럽 및 미국으로 수출된다.

(오세익 seikoh@krei.re.kr 02-3299-4281 한국농촌경제연구원)